

일차성 막성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의 임상상

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손영기, 허정훈, 이신애, 이은주, 주희린, 손승현, 안원석, 김성은, 김기현

목 적: 신생검상 일차성 막성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(MPGN)으로 진단된 환자의 임상소견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 하였다.

방 법: 1990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동아대학교 병원 내과에서 신생검상 MPGN으로 진단된 16명(1.6%)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결 과:

- 1) 환자의 연령은 37.6 ± 20.6 (14-76)세 였고, 남녀비는 11:5로 남자가 많았다.
- 2) 24시간 단백뇨가 3.5gm 이상인 경우는 13예(81.2%)였고, 현미경적 혈뇨를 동반한 경우가 11예(68.8%)였다. 6개월 이상 경과 관찰 중 혈청 creatinine이 2mg/dl 이상으로 증가된 군에서 24시간 단백뇨양이 많았다($p < 0.01$).
- 3) 혈청 C3가 감소한 경우가 7예(43.8%)였다.
- 4) 내원시 주증상이 부종인 경우가 12예(75%)였고 나머지는 요검사상 이상소견으로 내원하였다. 환자의 50%에서 고혈압을 동반하였다.
- 5) Prednisolone으로 치료한 예는 4명으로 이 중 1명(25%)에서 경과관찰 중 혈청 creatinine이 2mg/dl 이상으로 증가되었다.
- 6) 6개월 이상 경과 관찰한 14예의 평균 관찰기간은 52.2 ± 37.4 (6-110)개월이고, 이 중 7예에서 경과관찰 중 혈청 creatinine이 2mg/dl 이상으로 증가되었다. Kaplan-Meyer방법상 6.5년 신생존율은(혈청 creatinine이 2mg/dl이하) 41%였다.

결 론: 이상의 소견에서 MPGN은 진단시 부종 및 신증후군의 소견을 주로 보이며 단백뇨양은 임상 경과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. 국내에서 발생하는 MPGN은 발병 빈도가 낮아 예후인자 및 치료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